

광주서석중·고, 검도 단체전 ‘동반 우승’

대한검도회장기 전국대회

中, 결승서 3-1 승…시즌 3관왕
高, 결승서 4-1 승…대회 2연패
선수 관리 등 유기적 시스템 효과

광주서석중학교와 광주서석고등학교가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나란히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중은 시즌 3관왕을, 서석고는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전국 최강 검도 명문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광주서석중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중부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부원중을 3-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서석중은 지난 3월 용인대 총장기와 5월 대통령기에 이어 올시즌 세 번째 전국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라 3관왕을 달성했다.

서석중은 원통중(3-0 승)과 이곡중(4-0 승), 포천중(3-2 승), 진주중앙중(3-2 승)을 차례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서석중은 결승에서 부원중을 상대로 선봉 윤찬희가 상대 선수를 2-0으로 이겨 기선을 잡았다.

이어 2위 권민수가 1-1로 비기고, 중견 오승현이 0-1로 져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부장 옥하준(2-0 승)과 주장 허경도(2-0 승)가 연달아 승리해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광주서석중·고 검도선수단이 지난 1일 전남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끝난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서석중은 개인전에서도 권민수(2년)가 통합 개인전 준우승, 허경도(2년)가 통합 개인전과 2학년 개인전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서석고도 남고부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온양용화고를 4-1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서석고는 결승서 선봉 서수원이 비기고 2위 안일웅이 2-0 승리를 따내며 기세를 올렸다.

이어 3위 오승준이 비기고 중견 채희준이 0-1로 졌으나 5위 강현우(1-0 승)와

부장 정우민(2-1 승), 주장 이정환(2-1 승)이 연달아 이기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서석고는 앞서, 예선에서 광명고(5-1 승), 울산중앙고(4-2 승), 인천고(3(8)-3(7) 포인트 1점 승)를 연파하고 준결승에서는 김해영온고를 4-2로 물리치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줬다.

서석고는 학년별 단체전에서도 2학년부(오승준, 채희준, 정우민)와 3학년부(서규원, 강현우, 이정환)가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오승준(2년)이 통합 개인전 3위, 정우민(2년)이 2학년부 개인전 3위에 올랐다.

서석중·고는 학교법인 유당학원 산하 학교로, 검도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하는 일관된 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각기 다른 지도자들이 팀을 이끌고 있음에도 훈련방향과 선수관리, 경기운영 전반에 걸쳐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동반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정동진 서석중 교장은 “3관왕과 중·고

동시 우승은 선수들과 지도자, 학교가 함께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서석 검도가 앞으로도 한국 검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찬국 서석고 교장은 “선수단과 지도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오는 10월 전국 체전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서석중·고는앞으로도 차세대 검도 인재들을 배출하며, 검도 명문의 전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양현종 4승·13안타 타선 폭발

KIA, 두산 11-3 꺾고 2연승

KIA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와의 3연전의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2연승과 함께 5할 승률을 회복했다. 투타 조화가 어우러진 승리다.

KIA는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시즌 7번째 맞대결에서 11-3으로 이겼다. KIA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달렸고, 28승 1무 28패(승률 0.500)를 기록하며 승패 마진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리그 순위는 7위를 유지했다.

KIA 선발 양현종은 5이닝 동안 96개의 공을 던지며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1자책) 호투로 4승째(7패)를 따냈다. 6회말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성영탁(1이닝)~전상현(1이닝)~최지민(1이닝)으로 이어진 볼펜진은 모두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9회말 등판한 홍원빈은 1이닝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KIA 타선은 장단 13안타와 9볼넷을 생산하며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다. 2번타자 우익수 최원준이 3안타 2타점 3득점, 9번 중견수 김호령이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3번 2루수 윤도현과 4번 3루수 위즈덤, 5번 지명타자 오선우는 멀티 히트로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번 유격수 박찬호와 7번 1루수 황대인이 1타점씩을 생산하며 힘을 보탰다.

KIA는 1회초 3점을 뽑으며 기선을 잡



KIA 박찬호가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두산과의 경기에서 1회초 득점한 뒤 덕아웃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았다. 오선우가 1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냈다. 이어진 1사 만루에서 황대인이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1회말 1점을 내줘 3-1로 앞선 KIA는 4회초 3점을 더했다. 김호령의 좌중간 2루타와 박찬호의 볼넷으로 2사 1·2루가 됐고, 최원준이 1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다. 이어 윤도현이 1타점 좌전 적시타를, 위즈덤이 1타점 우전 적시타를 각각 생산하며 6-1로 달아났다.

5회말 우익수 최원준의 포구 실책으로 1실점해 6-2가 된 8회초 KIA는 대거 5점을 추가하며 승기를 잡았다. 김호령과 박찬호, 최원준이 연속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렸고, 윤도현이 1타점 좌중간 적시타를 쳤다. 이어 김석환의 1루수 땅볼 때 상대 1루수 포구 실책으로 3루주자 윤도현이 홈을 밟았다.

11-2로 크게 앞선 KIA는 9회말 1실점만 하고, 8점 차 대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체육고 조정부, 장보고기 전국대회서 금빛 물살

금 3·은 2개… 여고 종합 준우승 시체육회 싱글·더블스컬 銀 2개

광주체육고등학교 조정부가 제51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광주체고 여고부는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조정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육고 여고부 출전 선수들은 금 2, 은 1개를 수확하며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선(3년)과 노효림(1년)이 여자18

세이하부(여U18) 더블스컬(2X)에서 7분37초29의 기록으로 서울체고(7분47초53)와 부산체고(8분01초79)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선은 여U18 싱글스컬(1X)에서도 9분06초52로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노효림은 9분17초05로 김지선에 이어 2위를 기록,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고 남고부 출전 선수들도 선전을 펼쳤다. 강준우(3년)가 남U18 경량급 싱글스컬(L1X)에서 9분48초14로 서울체고 서정완(9분05초73)과 전북체고 한승재(9분11초91)를 제치고 금빛 물살을 갈랐다.

강준우(3년)·강한경·박성빈·박준호(이상 2년)는 남U18 쿼드러플스컬(4X)에서 6분28초52로 1위 부산체고(6분28초10)에 0.41초 차 뒤진 2위를 차지했다.

광주시체육회 조정팀은 은메달 2개를 따냈다.

김정민이 여대·일반부 싱글스컬(1X)에서 9분25초05로 1위 김승현(군산시청·9분22초30)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정민은 서예서와 함께 출전한 더블스컬(2X)에서도 7분39초8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체육회,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연속 선정

체육 영재발굴 프로젝트 국비 1억5000만원 확보

전라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연달아 선정되며 지역 체육 인재 육성의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전남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의 ‘2025년 단체구기종목 영재발굴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대회 단체구기종목 부진을 계기로 전국 5개 권역(수도권·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의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유망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적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종목별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남은 호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지역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단체구기 종목 중심의 유망주 육성에 나선다.

전남체육회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연계 ‘찾아가는 발굴 프로그램’ △집중 훈련캠프 △스포츠과학 기반 체력 측정 및 성장 분석 △전문가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 ‘전남형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스포츠과학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기초체력 인증 및 성장 영역 분석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 과학적 유망주 육성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학령인구감소로 단체구기 종목의 선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유망주 육성 체계를 전남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2025 단체구기종목 리더스포츠클럽 집중훈련캠프 지원사업’에서도 전국 최다 리더클럽 선정으로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포함해 올해 상반기 총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유치하며 체육 분야 공모사업 선도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동환 기자